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홍) 주님 수난 성지 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홍)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3. 4. 2.)

*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는 파스카 신비에 동참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이사야서 50,4-7):

4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5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6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7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 제2독서(사도바오로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6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 복음(마태 복음 27,11-5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7,11-54

그때에 11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12 ○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15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18 ○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20 ○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21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 군중이 대답하였다.

◎ “바라빠요.”

22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 군중이 모두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3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4 ○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25 ○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26 ○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27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28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29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30 ○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31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겂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33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34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겂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36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37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38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39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40 이렇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41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42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43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44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45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47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48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50 ○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51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5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화답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쭈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썰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내놓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그들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며 세계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3.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위로하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4.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구(대리구, 수도회)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 입당 : 10 (주를 찬미해)
-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 : 169 (사랑의 성사)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 : 489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공지 사항

♣ 파스카 성삼일 전례안내

- 주님 만찬 성목요일 : 04월 06일, 저녁 8시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 07일, 저녁 8시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 08일, 저녁 8시
- 파스카 성삼일 동안 사순시기 이웃돕기 모금 있습니다.
(파스카 성야, 부활 대축일 2차 헌금)

♣ 금일 미사 후 십자가의 길 기도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십자가의 길 시간에 정상 수업 합니다 학생들은 교리반으로 오기 바랍니다

♣ 봉사자

	오늘 주일(2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6일)
제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안보영 쟈마
제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박세아 루시아
복사	이준서 마르티노/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엄소연 라파엘라/ 엄채윤 엘리사벳	정명용 미카엘 / 박동현 요한보스코
계단·화장실	엄기용 안토니오	안보영 쟈마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43.09 • 교무금 € 500.-